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군집에 따른 희망과 그릿의 관계

김진철¹, 장봉석^{2*}

¹교육부 운영지원과 교육연구원, ²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Grit by Group Type of Principal's Subjective Well-being

Jin-Cheol Kim¹, Bong-Seok Jang^{2*}

¹Education Inspector, N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Ministry of Education

²Professor, Dep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군집에 따른 희망과 그릿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육부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과정에 참여한 중등학교 교장 318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상관분석, 군집분석, 다변량분산분석, 일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안녕은 4개 군집으로 구분되었고, 효능 안녕이 높은 집단의 빈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안녕 군집별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에 다양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연수 시 주관적 안녕과 관련한 개인차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로써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의 관계구조를 밝히는 연구와 그릿의 하위변인 중 흥미의 일관성 척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학교장,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 군집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hope and grit by cluster of subjective well-being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Researchers analyzed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18 principals. We adopted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and one-way variation analysis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hope and grit. Second, the cluster of subjective well-being appeared in four clusters, and most of samples were belonged to the cluster of efficacy well-being. Third, the sub-variables of hope and grit were differed by subjective well-being cluster typ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ersonal differences regarding subjective well-being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incipal training program. Researchers proposed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hope and grit and the review of the consistency of amusement scale for the further study.

Key Words : Principal, Subjective Well-being, Hope, Grit, Cluster Analysis

1. 서론

긍정심리학의 등장으로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삶의 질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되었으나, 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대체 용어로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관적 안녕은 즐거운 삶을 의미하고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으로써 삶의 경험

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인 판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

최근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행복과 주관적 안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행복 혹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수준을 분석하고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논의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배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Corresponding Author : Bong-Seok Jang(bsjang@mokpo.ac.kr)

Received March 22,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April 14,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록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2]. 그러나 학교 행복과 관련하여 학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현재까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는 교육 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인지상태와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학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장 긍정 심리의 개인차 역시 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군집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관적 안녕 하위변인의 정적, 부정 특성이 연속적인 선상에서 나타나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학교장 주관적 안녕의 하위 프로파일별 종속변인으로써 긍정심리 자 본인 희망과 그것의 차이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학교장으로 확장하여 주관적 안녕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한 점이다. 둘째, 주관적 안녕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한 뒤, 관련 변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학교장 주관적 안녕, 희망, 그것 간의 관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주관적 안녕은 인지적 및 비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희망과 그것이 비인지적 정서 요소라는 점에 판단하면, 학교장의 개인차에 대한 복합적 요소를 동시에 투입하여 조명하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 수준이 낮은 학교장을 위해 보완적인 연수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희망, 그것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군집유형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군집유형별 희망과 그것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Martin Seligman 교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제안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행복, 사랑, 미덕 등과 같은 강점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 연구에 기반하여 학교장의 긍정심리로 주관적 안녕, 희망, 그것의 변인들을 선택하고 연구에 적용하였다.

2.1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은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삶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경험을 포괄하는 심리적 개념이다[3]. 구체적으로 인지적 요인은 개인의 기준에 대비해 자기 삶의 질을 평가하는 의식적인 판단 과정을 의미한다. 정서적 요인은 즐거움, 열정적 힘과 같은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 죄의식, 질투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이 높음은 인지적 판단으로써 삶의 만족이 높고, 정서적 판단으로써 긍정적 정서는 많이 느끼는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적게 느끼게 된 상태로 요약될 수 있다.

2.2 희망

희망 이론(Hope theory)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도 사고(목표 달성 에너지)와 경로사고(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긍정적 동기를 의미한다[4]. Snyder와 그의 동료들은 1991년 희망척도(Disposition Hope Scale)를 개발하여 경로사고(path thinking)와 주도사고(agency thinking)를 측정하였으며[5], 이후 건강, 안녕, 상담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희망은 우울증을 낮추고, 희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다[6]. 희망 변인은 자기 파괴나 자기 부정적 감정을 예방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망적 사고에 기반하여 집중하고 방법을 모색하여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3 그것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발휘하는 열정과 인내로 정의되며[7],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 노력의 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흥미의 일관성 유지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력 지속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는 특성을 뜻한다.

2.4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과의 관계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세 연구변인들은 강점, 미덕 등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희망과 관련하여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행복에 대한 목표지향성을 지니고 삶에 대하여 인지적 판단과 및 정서적 평가를 한다[3]. 희망 역시 목표지향성을 가정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데, 희망 변인 역시 목표지향적인 에너지로써의 주도사고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의 경로사고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인 동기를 높인다[4].

국내 선행연구 분석 결과, 이희경(2007)은 중학생의 정서적 안정에서 공감보다 희망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고[8], 장은주(2013)는 주관적 안녕과 희망의 하위변인 중에서 주도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고했다[9]. 위 결과를 보면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은 희망 역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으로 평가하고 목표추구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삶에 대하여 행복, 만족,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해를 말한다[10]. 그릿은 개인의 의미가 있는 목표에 대하여 꾸준한 노력과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한다[11].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 행복, 긍정 정서 등 긍정심리와 관련이 있다.

한편, 희망과 그릿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변인이 모두 긍정적이고 비인지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특성에서 관계성을 추정할 수 있다. 희망은 개인별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내면적 동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난관에 닥쳐도 이를 지속시켜야 한다[6]. 그릿 또한 흥미 일관성과 노력지속성도 결국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개인의 관심사에 대하여 흥미를 지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희망과 그릿은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중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2019년 9월에서 2020년 12월 사이에 실시된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과정에 참여한 600명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18명의 응답자 중 불충분하게 답변된 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2명(중학교 161명, 고등학교 151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주관적 안녕

학교장 주관적 안녕 측정을 위해 박병기와 송정화(2007)가 표준화한 척도를 적용하였다[12]. 주관적 안녕은 효능안녕, 정서안녕, 관계안녕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영역별로 정적 및 부적으로, 즉 2상태×3영역의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영역은 총 8문항(정적 4문항, 부적 4문항)으로 구성되며, 모두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보고식 6점 Likert 방식(확실히 아님부터 확실히 그럼까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54로 높게 나타났다.

3.2.2 희망

상태 희망 척도(Trait Hope Scale)를 타당화한 김택호(2004)의 설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13]. 설문지는 모두 18문항으로 되었으며, 경로사고 7문항, 주도사고 7문항, 중립(filter) 4문항이다. 자기보고 5점 Likert 형식(매우 아님부터 매우 그럼까지)으로 측정되었고, 채점 시 중립문항은 제외되었다. 희망의 전체 신뢰도는 .897로 높게 나타났다.

3.2.3 그릿

Original Grit Scale(Grit-o) 척도의 번역본이 연구에 활용하였다[14]. 그릿 척도는 크게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흥미 일관성은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경향성을 측정하고, 노력 지속성은 어려움에 처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척도는 자기보고 7점 Likert 형식(전혀 아님부터 매우 그럼까지)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신뢰도는 .813로 높게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며, 먼저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관적 안녕의 하위영역 변인에 대해 표준화 점수를 기준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15]. 먼저 Ward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표 (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폭과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토대로 군집 수를 추정하였다. 이후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으로 K-평균 군집분석 (K-mean 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여 최종 군집별 중심점과 군집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에 따른 군집별 희망과 그릿의 평균 점수의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정 군집에 대하여 다변량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3개를 제외한 18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상관계수는 .259에서 .826까지의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효능안녕은 희망의 경로사고, 정서안녕과 관계안녕은 주도사고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그릿의 열정과 희망의 두 하위변인들, 그릿에서 노력 지속성을 의미하는 끈기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부적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침도의 경우 정서안녕, 경로사고, 주도사고 등에서 정적편포가 발견되었으며, 효능안녕, 관계안녕, 열정, 끈기 등에서 부적 분포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2이하이었으며, 침도는 절대값 7이하로써 모형분석에 있어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Table 1.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Variables		1-1	1-2	1-3	2-1	2-2	3-1	3-2
Subjective well-being	1-1 Efficacy							
	1-2 Emotion	.620**						
	1-3 Relation	.516**	.592**					
Hope	2-1 Path	.504**	.464**	.430**				
	2-2 Agency	.422**	.573**	.448**	.826**			
Grit	3-1 Consistency	.316**	.475**	.279**	.160	.192		
	3-2 Perseverance	.385**	.259**	.243**	.619**	.582**	.025	
M		40.86	41.01	39.97	18.66	27.16	23.47	25.80
SD		5.65	5.91	6.61	1.98	3.38	5.60	3.28
Skewness		-.814	-.816	-.843	-1.482	-1.285	-.503	-.601
Kurtosis		-.064	.060	-.003	1.511	1.369	-.026	-.360

**<.01

4.2 주관적 안녕의 군집 분류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에 대해 표준화점수를 기준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군집별 중심점과 군집분포는 다음과 같다. 군집양상을 살펴보면, 군집1은 31.4%(98명), 군집2는 33.7%(105명), 군집3은 20.5%(64명), 군집4는 14.4%(45명)로 나타났다.

Table 2. Standardized scores of four clusters

Variabl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Efficacy	.78710	.07004	-1.89970	-1.26129
Emotion	.89633	-.18161	-.40319	-1.65483
Relation	.69085	.01437	.14944	-1.68014
n(%)	98(31.4)	105(33.7)	64(20.5%)	45(14.4%)

군집별 점수는 표준점수(M=0, SD=1)

군집개수 결정 후 군집별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등 학교장 주관적 안녕의 각 군집들은 하위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즉 4개 군집별로 다른 주관적 안녕의 특성을 갖는다. 군집별 하위변인 표준점수 평균 차이의 양상을 살펴보면, 군집중심 결과를 토대로 군집1은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이 모두 높아서 모두 높음 집단, 군집2는 상대적으로 효능안녕이 높아서 높은 효능 집단, 군집3은 상대적으로 관계안녕이 높아서 높은 관계집단, 군집4는 모든 하위변인이 낮아서 모두 낮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Mean differences by clusters

Variable	Cluster1 (n=98)	Cluster2 (n=105)	Cluster3 (n=64)	Cluster4 (n=45)	F
	Both High	High Efficacy	High Relation	Both Low	
	M(SD)	M(SD)	M(SD)	M(SD)	
Efficacy	45.31(2.64)	41.25(2.24)	30.12(2.23)	33.73(4.63)	304.249**
Emotion	46.31(1.96)	39.93(3.33)	36.62(4.46)	31.22(3.87)	276.668**
Relation	44.54(3.21)	40.07(5.12)	37.66(2.46)	28.86(4.36)	154.376**

**<.01

4.3 중등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군집유형별 희망과 그릿의 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군집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다변량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들이다. 다변량 검증에서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 루트를 기반으로 군집별 하위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하위변인들의 오차 분산 동일성에 대한 Levene's test 결과, 모든 하위변인들이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서 Dunnett의 T3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군집별 희망과 그릿의 평균점수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망에서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리고 그릿의 열정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모두 높은 군집이 나머지 3개 군집보다 높았고, 높은 효능이 높은 관계와 모두 낮은 군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높은 관계와 모두 낮은 군집은 차이가 없었다. 다만 그릿의 끈기에서는 모두 높은 군집이 나머지 3개 군집보다 높았고, 높은 효능이 높은 관계와 모두 낮은 군집보다 높았으며, 높은 관계가 모두 낮은 군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Mean differences of hope and grit by clusters

Variable		Cluster1 (n=98)	Cluster2 (n=105)	Cluster3 (n=64)	Cluster4 (n=45)	F	Post-hoc
		Both High	High Efficacy	High Relation	Both Low		
		M(SD)	M(SD)	M(SD)	M(SD)		
Hope	Path	19.83(4.9)	18.23(1.91)	17.25(3.25)	17.03(2.14)	48.488***	1)2)3,4
	Agency	29.11(1.62)	26.53(2.66)	24.64(5.22)	24.45(4.48)	46.415***	1)2)3,4
Grit	Consistency	26.02(6.17)	23.63(2.98)	19.14(4.05)	18.85(5.65)	36.867***	1)2)3,4
	Perseverance	27.87(2.24)	25.02(2.69)	22.97(3.96)	20.13(3.36)	56.249***	1)2)3)4

**<.01

5. 논의

5.1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 간의 관계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 간 상관관계 수를 기준으로 약 8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세 변인 모두 긍정심리학이 이후에 개인의 강점을 드러내는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주관적 안녕과 정서적 안정, 주관적 안녕과 희망의 주도사고와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8, 9]. 또한, 그릿이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고, 정서적인 안녕과 희망이 정적관계라는 결과와도 유사하다[7].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에 따라 주관적 안녕이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때, 주관적 안녕은 희망과 그릿 등의 긍정적인 심리자본을 많이 포함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릿의 하위변인으로 흥미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열정과 희망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수행결과에 대한 다수 연구에서 흥미의 일관성이 낮다고 보고한 임효진(2017)의 관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16]. 임효진(2017)은 흥미의 일관성 문항들이 모두 부정 진술문이었어서 역산 처리될 때, 신뢰도나 낮아지거나 측정오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16]. 또한 지적흥미 일관성 척도와 심리개념으로서 흥미와의 관계, 그리고 척도 문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5.2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군집분류 및 희망과 그릿 관계

학교장 주관적 안녕에 대하여 2단계에 걸쳐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은 모두 4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효능안녕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높은 효능 군집에 가장 많은 사례수가 포함되었고, 효능과 관계가 모두 낮게 나타난 낮은 효능 집단에 가장 작은 사례수가 포함되었다.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능 안녕이 높다는 것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이 높고 자신의 행동을 내면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주위 환경에 대처하는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3]. 그리고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은 자연발생적으로 하위군집이 구성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행복 연수 시 집단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학교장 주관적 안녕의 군집별 희망과 그릿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군집들 간의 주관적 안녕에서 집단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희망과 그릿의 종속변인 각각에 대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각 군집별 4가지 종속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희망의 하위변인 모두와 그릿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리고 그릿의 열정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모두 높음 군집이 나머지 군집보다 높았고, 높은 효능 군집이 높은 관계 군집과 모두 낮음 군집보다 높았으나, 높은 관계 군집과 모두 낮음 군집은 차이가 없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리고 그릿의 열정에서 효능안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관계효능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영향 경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교장의 주관적 안녕 군집 유형별 희망과 그릿의 관계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 희망, 그릿 간 상관관계 수를 기준으로 약 8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의 군집 유형별 희망과 그릿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안녕과 희망과 그릿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인 효능안녕은 희망의 경로사고, 정서안녕과 관계안녕은 주도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릿의 열정은 희망의 하위변인들, 그리고 그릿의 끈기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주관적 안녕은 인지적 및 비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희망과 그릿이 비인지적 정서 요소라는 점에서, 학교장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관적 안녕의 하위변인을 표준화점수를 기준으로 2단계 군집 분석한 결과, 4개 군집으로 나타났고, 효능안녕이 높은 군집에 가장 많은 사례수가 포함되었다.

셋째, 주관적 안녕의 군집에 따라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에 대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종속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의

하위변인 모두와 그릿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리고 그릿의 열정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모두 높음 군집이 나머지 군집보다 높았고, 높은 효능이 높은 관계와 모두 낮음 군집보다 높았으나, 높은 관계와 모두 낮음 군집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리고 그릿의 열정에서는 주관적 안녕의 효능안녕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6]. 그리고 학교장 주관적 안녕의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연수 설계에서 개인차가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안녕이 낮은 집단에서는 희망과 그릿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에 대한 방법 안내와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관계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요구될 것이다.

REFERENCES

- [1] E. Diener.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389-399. DOI : 10.1006/jrpe.1996.0027
- [2] M. Kim. (2019). Ideas and Tasks of Happy School. *The Journal of Elementary Moral Education, 66*, 279-304.
- [3] E. Diener. (1996).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OI : 10.1037/0033-2909.95.3.542
- [4] C. R. Snyder. (2004). Hope and depression: A light in the dark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347-351. DOI : 10.1521/jscp.23.3.347.35458
- [5] C. R. Snyder, L. M. Irving & J. Anderson. (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Elmsford, NY: Pergamon Press.
- [6] C. R. Snyder. (2002). Hope theory: Rainbow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DOI : 10.1207/S15327965PLI1304_01
- [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8] H. K. Lee. (2007).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y Subgroups of Hope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51-766.

- [9] E. J. Jang.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gency thinking and pathways thinking of hope, academic achie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tive coping strategy as mediator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10] R. Veenhoven.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DOI : 10.1007/BF00292648
- [11] K. R. Culin, E. Tsukayama & A. L. Duckworth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DOI : 10.1080/17439760.2014.898320
- [12] B. G. Bak & J. H. Song. (2007). Multidimensional 2×3 Factor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591-611.
- [13] T. H. Kim. (2004). *The effect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youth's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14] S. R. Lee. (2015).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5] J. F. Hair & W. C. Black.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m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6] H. J. Lim. (2017). The Current State of Grit Research and its Need for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4), 663-681.
DOI : 10.17286/KJEP.2017.31.4.04

김진철(Jin-Cheol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5년 9월 ~ 현재 : 중등교사, 교감, 장학관, 교육부 교육연구원
- 관심분야 : 교육심리, 교육과정, 인지심리
- E-Mail : jin1789@korea.kr

장봉석(Bong-Seok Jang)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2006년 8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8월 : 미국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과정학과(교육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 실행
- E-Mail : bsjang@mokpo.ac.kr